

가을호 2009. 11 No.6

동/물/보/호/지

함께 나누는 삶

요생역전 은비 Animal Watch 동물원 ISSUE 동물치료의 부가가치세 부가
세상읽기 인간의 무지와 탐욕에 희생되는 슬픈 돌고래

반려동물문화캠페인 _ 6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반려동물입양을 고려해주세요

INTERVIEW 최영우 대표 편지에서 섬에 버려지는 개를 반려동물 FAQ 분리불안

2010 동물자유연대 탁상용 달력 판매

CONTENTS



- 1 **여는 글** | 동물원이 동물보호 교육의 장이 되던가요?
- 2 **요생역전** | 학대받던 고양이 은비의 행복 찾기
- 4 **Animal Photography** | 사진으로 보는 동물원
- 6 **Animal Watch** | 관람객이 참여하는 동물원이 꼭 필요할까?
- 8 **Issue** | 동물진료의 부가가치세 부가
- 10 **세상읽기** | 인간의 무지와 탐욕에 희생되는 슬픈 돌고래
- 12 반려동물 문화캠페인 6 | 공유기동물보호소에서의 반려동물입양을 고려해주세요
- 13 입양해주세요 | 행당동 미모 담당 시추 여주
- 14 **INTERVIEW** | '도움과 나눔' 최영우 대표
- 16 **현장에서** | 섬에 버려지는 개들
- 18 활동소식 | 2009년 9월~2009년 12월
- 20 반려동물 FAQ | 분리 불안이 심한 반려견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1 **Live on vegetables** | 쉽고 간단한 '버섯덮밥'
- 22 포토행당뉴스 | 옥지도 3남매의 서울 적응기



동물원이 동물보호 교육의 장이 되던가요?



조희정 | 대표

외출하기가 좋은 계절이 되면 유년기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쥐고 동물원을 찾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동물원을 갔던 기억은 먼 훗날 어른이 되어서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잔상과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부모님과 행복했던 시간, 주변의 예쁜 환경들, 재미있었던 놀이기구, 그리고 예쁘거나 무서웠던 동물들... 이렇듯 행복한 기억 외에,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동물원에 가서 동물을 보고 만지며 느꼈던 동물에 대한 감정을 기억해낼 수 있나요?

우리단체가 2000년에 전국에 있는 동물원 연간 재정 상황을 조사했던 바에 의하면, 동물원들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큰 규모의 동물원에서는 수십억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원이 동물원 자체 운영만으로는 100%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대형 동물원 몇 군데 외 대다수의 동물원에는 동물의 관리가 잘 되지 못한 채 방치된 사례도 종종 제보 받았습니다. 동물원들은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동물쇼 등의 오락물들을 기획하여 관람객 유인 상품을 내걸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것들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들은 동물도 먹고 살려면 밥벌이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쇼는 정당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 동물

들은 자연 생태에 의해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의해 세상에 태어난 동물들이니까. 때문에 그 동물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동물이 생존을 위해 밥벌이를 해야 할 것은 아닌 것이지요.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은 동물원 동물들을 보며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은 곧 동물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 동물원의 존재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라고요. 그런데 어린이들로부터 동물원을 다녀온 이후의 소감을 들어보면, 그러한 주장은 좀 궁색해 보입니다. 어린이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경험과 때론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배운 학습 효과 정도에서 생각이 멈추기 때문이지요. 반면 동물쇼나 체험학습에 이용된 동물들은 높은 스트레스와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절박한 생사의 문제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른들에 의해 동물이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배경은 짚어봐야 하고, 그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동물들을 보는 어린이에게 자연 생태의 기준이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지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할 문제 아닐까요? 아이들에게 인위적인 동물쇼, 동물체험학습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 속에 있는 생태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물의 입장에서 고려된 자연생태공원형 동물원들이 조성되는 시기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부터 변화합니다. ❷



어미 고양이를 잃고 외롭게 홀로 떨어져 살아가는 아기 냥이에게 사람만큼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길냥이로 살아가는 것은 그림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존재감 따위는 없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네 꼬마에게 잡힌 어린 냥이는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뜨려지기도 하고, 심지어 호기심의 대상으로 목숨을 잃게 됐다는 무서운 얘기들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돌에 얻어맞고 위협과 협박의 고향 소리를 듣는 일은 차라리 아무렇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 구조 직후 모습

은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붙잡혀 은비의 수염이 불에 그을리는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은비라는 아주 순하고 예쁜 냥이 공주를 알지 못했겠지요.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은비 모습도 결코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예전엔 행당동에 냥이들의 보호공간이 따로 없어서 은비는 한 회원님의 도움으로 임시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 가정의 울타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은비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었나 봐요. 2년여의 생활을 끝으로 다시 행당동으로 오게 됐습니다.

앞으론 어디서 보호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부산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애타게 기다리던 은비의 입양 소식이었답니다.

지금은 똥똥보 아줌마가 되어 온갖 호사를 누리고 사는 은비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실래요? ☺



은비의 큰 오빠

은비는 우리 가족이 키우는 고양이, 아니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은비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1년 전인데요 그 때는 내 동생만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에 기뻐했지만 함께 한 세월이 차츰 흘러가다 보니 우리 가족 모두가 은비를 아끼고 사랑해주게 되었습니다. 은비도 우리에게 계속 마음을 열어 주는 것 같아 고맙고 이제 부쩍 커서 제 말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갈 때면 따라 나와 배웅해 주기도 합니다.

가끔 화분의 식물들을 뜯어먹거나 소파를 뜯기도 하지만, 은비는 여전히 소중한 우리의 가족입니다. 앞으로 은비와 얼마나 더 같이 지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영원히 같이 있지는 못 할 것이지만 그래도 은비가 우리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보살펴 줄 것입니다.

은비야, 사랑해~~~~~



은비의 작은 언니

우리 집에서 가장 귀여운 은비는 1년 전부터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은비는 귀엽고 말도 잘 들어서 꼭 동생 같아요. 어떨 때는 저의 침대 위에 올라가서 낮잠을 즐길 때가 있는데, 너무 예쁘게 자서 혼을 낼 수가 없어요. 은비는 우리 집을 활짝 웃게 해 주고, 하는 행동도 너무 귀엽고, 언제나 저를 반겨준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도 은비를 보려고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하는데요 모두들 은비를 보고 예쁘다고 해요. 또, 은비는 제가 울 때 옆에 다가와서 저를 웃게 해주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또, 은비가 너무너무 고맙고요. 이런 은비는 우리 집에 없어서 안 될, 저의 예쁜 동생이랍니다.





▲ 주주동물의 오랜 마스크트였던 우탄이, 오래된 철창 너머로 힘없이 관람객들을 상대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동물원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동물원, 최근에는 '테마 동물원'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멀찍이 떨어져 동물을 관람하는 전시형 동물원에서 벗어나,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한다.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동물을 만져본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체험일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굳이 동물을 만져봐야만 하는 것일까? 반드시 직접 만져보고 동물들이 억지로 뛰어노는 모습을 보아야만 생명체 대한 애정이 더욱 각별해지는 것일까? 인간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이 야생에서 살아왔던 억지로 가해지는 인간의 손길이 동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체험동물원 안의 어디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❷



①	②
	③
	④

- ① 사람 옷을 입은 어색한 모양새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이런데서 즐거움을 느껴야 할 이유는 없다.
- ② 원숭이 두 마리가 장기 자랑 쇼를 준비하고 있다.
- ③ 먹이체형 프로그램을 위해 동물원 한 칸에 매여있는 미니나귀. 등에 올라타지 말라는 눈에 띄는 경고문을 통해 체험 관광객들에게 당하는 시달림의 정도를 짐작해볼 수 있다.
- ④ 철창 너머로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을 보여주는 원숭이들. 이들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



관람객이 참여하는 동물원이 꼭 필요할까?

전 경 욱 | 국장

몇 년 전 TV를 통해 소개됐던 자전거를 타는 오랑우탄 우탄이를 기억하는지, 지난 9월 쇼 동물 우탄이가 있는 경기도 일산의 주주동물원을 가봤다. 2004년 동물자유연대가 처음 가본 이후 5년째 방문이었다.

만지는 동물 체험이 갖는 의미는...

최근 들어 동물원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주주동물원이 대표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른바 테마 동물원인데, 이는 기존의 전시형 동물원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동물원이다. 그런데 동물을 만나고 참여하는 것은 사람들이 동물을 직접 만지는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생물을 만져본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와 결과에 따라 끼치는 영향이다. 동물을 굳이 만져봐야만 하는가. 만져본 후 동물에 대한 애정이 더 각별해지는가, 그런 애정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주로 야생 동물이다. 인간과 더불어 산 역사가 짧은 야생 동물들에게 과연 인간의 손길은 어떤 영향을 줄까?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주주동물원에서는 거의 모든 동물을 만질 수가 있다. 새와 아기 동물 심지어 뱀 등과 같은 파충류도 각 전시장에 들어가면 체험 코너가 마련돼 있어서다. 퍼레이드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어서 원숭이, 뱀, 앵무새, 캥거루 등을 만지거나 사진을 함께 찍을 수도 있다.

퍼레이드가 펼쳐질 땐 우탄이가 아닌 다른 오랑우탄 오랑이가 자전거를 타고 관람객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 많은 아이들이 오랑우탄이나 원숭이, 뱀 등을 만지는 것을 두려

워한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 온 어른들은 한번쯤 거쳐야 할 통과례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만져보기를 권한다.

아이들이 만지는 동물들은 스스로가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습성이 남아 있지 않다. 사람 옷을 입고 사람이 요구하는 틀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다. 1년 365일 개장하는 주주동물원에선 이들 쇼 동물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사람처럼 월급도 휴일도 노후 보장도 안 돼 있다.

몸집이 커대해져 더 이상 쇼 동물로 적당하지 않은 우탄이는 뒷방에 전시돼 사람들에게 먹이를 구걸하고 있다. 우탄이에게 먹이를 던져주며 “굴러”를 외치는 관람객들,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우탄이는 열대우림에서 살며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영리한 영장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저 먹이나 구걸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돼 버렸다. 오랑우탄의 평균 수명은 40년이다. 지금 아홉 살인 우탄이는 남은 생을 작은 골방에서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

야생성을 잃어가는 동물원의 동물들

동물원은 아무리 환경 개선을 해도 자연 상태와 같을 수는 없고 항상 비좁고 열악하다. 다양한 생태 환경에서 살아온 동물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관리된다는 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자체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동물원보다 지방의 동물원이나 개인



기업이 운영하는 동물원은 예산상의 문제로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적자를 면하기 위해 이들 업체가 생각해낸 것이 동물 쇼다. 주주동물원의 대표적 동물 쇼인 악어쇼와 중국동물올림픽을 관람하려면 성인 기준 입장료를 포함해 1만4500원이다.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드는 비용으로는 절대 비싸지는 않다. 문제는 동물 쇼의 내용이다. 동물 쇼는 동물의 본 모습을 왜곡해 인간이 훈련시켜 동물이 재주를 부리는 것이다.

중국동물올림픽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곰, 원숭이, 사자들이다. 철봉, 평행봉, 허들, 줄넘기를 하는 반달가슴곰과 줄타기를 하는 원숭이, 뿔을 넘는 사자는 분명히 야생에서 사는 동물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조련사들은 먹이를 주며 칭찬과 보상을 충분히 주며 훈련시킨다고 주장하지만 막대기 등으로 툭툭 치며 동물에게 부자연스러운 재주를 가르치는 과정 자체가 공포와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동물 쇼를 즐기는 사람들의 시선이다. 동물의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억지로 훈련시키고 그것을 즐기는 일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악어 쇼의 경우 전반부에 물속에 있는 악어의 꼬리를 잡고 억지로 끌어올리는 게 쇼 내용 전보다, 막대기로 악어를 툭툭 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며 쇼 처음부터 끝까지 거친 야생의 악어를 길들여 사람들이 즐기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과정이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희생하는 동물들

근대 동물원의 시초는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이것은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17~8세기 유럽의 탐험가들은 제3세계의 원주민들을 자국으로 데리고 와 전시하거나 심지어 노예로 부리기도 했다. 이에 아울러 열대우림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동물들을 무차별적으로 배에 실어와 동물원 형태를 만들어 냈다. 동물 전시는 돈벌이에 이용됐고 여기에

야생동물보호구역이라는 새로운 명분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영국의 동물단체인 'The Captive Animals Protection Society(CAPS)'에서 작성한 'The Reality of Zoo's'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만여 개의 동물원 중 멸종 위기 동물을 위한 공간은 고작 5~10% 정도다. 현재 동물원의 주기능은 동물 전시와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곳이 됐다. 시민들의 휴양 레저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물들의 환경 조건을 개선시키기는 힘들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기후대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을 무차별적으로 몰아넣은 동물원 자체가 모순이다. 섭씨 30도가 웃도는 한여름 기온을 경험해야 하는 북극곰의 삶을 봐도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휴일 나들이에서 동물을 즐길 거리로 보는 데 입장료를 인상한다고 해도 환경 개선엔 한계가 있다. 동물원의 적자 운영은 동물쇼를 만연하게 하며 이에 따라 동물을 보는 눈도 왜곡되고 만다.

동물원의 동물은 동물보호법상으로 적용 대상이 안 된다. 법에서 정한 학대의 규정대로 심각한 물리적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지 않는 이상 전시되거나 오락거리가 되는 동물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동물원 동물들이 자연에서 아이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존재란 점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무료하게 살고 있거나 사람처럼 옷을 입고 지시대로 묘기를 부리는 게 동물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아이들의 정서엔 아무 문제가 없을까, 우리 미래와 관련된다면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❷

〈오마이뉴스 09. 11. 4일자 기사〉



동물진료의 부가가치세 부가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5일 '2009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증세'에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의료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세가 면제되어 왔던 수의사의 동물 진료료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앞으로 반려동물을 진료 받거나 치료할 때에는 동물병원비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비용에 약 10% 상승한 진료비를 지불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건강 등 기초후생 보장 차원의 일반 의료와 달리 인간의 질병치료와 관련 없는 동물 진료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 선진국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축산용 가축 진료가 농어촌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면세를 유지한다는 것과 대조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사치품을 소비하는 주체로만 대상화하는 국가적 사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근거로 든 선진국의 적용 사례를 보면, 미국은 단 3개 주(하와이, 뉴멕시코, 사우스다코타), 그리고 일본 및 몇몇 EU 국가들에서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의 과세방침은 반려동물 소유주를 일방적인 과세 대상으로만 삼는 것에 있지 않다.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그 소유주의 의무와 그에 따른 권리 또한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이는 동물에 대한 기호와 상관없이, 이미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들과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생활의 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선진국의 반려동물문화에는 발전된 애견문화 이면에, 애견산업



의 발전이 극대화되었을 때 침해 될 소지가 있는 동물복지의 원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등록제를 통한 유기동물발생의 방지와 반려동물 관리시스템 구축, 무분별한 애견판매업에 대한 규제는 물론이거니와, 동물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등의 노력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발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반려동물 등록제와 판매업 등록제가 포함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제도적으로 공고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 등록제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실정에 있다. 게다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개식용 문화가 잔존해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애견으로 불리는 견종들 중 상당수도 이 개식용 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반려동물로 인식되어 있는 견종마저 동물 복지가 보장 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과세에 있어서만은 선진국의 원칙을 지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제적 기준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복지 원칙을 지키는 법적, 제도적 기준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바람직한 반려동물문화 형성의 주체는 해당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 그들과 함께 사는 이웃, 그리고 정부 등 당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포함되며, 이들은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며, 합의에 따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인 2006년 한 국회의원이 개를 키우는 소유주에게 세금을 물리자는 법안을 내려다 시민들의 항의로 무산된 적이 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개통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는 개정안이 논의될 당시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동물관리법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어난 주원인 이었다. 문제는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무분별한 시민들의 존재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소유주를 잠재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며, 사치스러운 부유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인식에 있다. 그들은 이러한 시각에서 애견인은 사회에 폐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러므로 애견인은 국가적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이런 논리에 따라 반려동물의 진료행위조차도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문화는 이미 사회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질병 발생과 이에 따른 치료는 사치스러운 기호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료행위와 다르지 않다. 과도한 병원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고 동물을 내다 버리는 일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유기동물발생을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고, 이는 다시 유기동물관리 정책의 재정비와 집행을 위한 세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인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부적절하다. ☹



인간의 무지와 탐욕에 희생되는 슬픈 돌고래

마용운 | 환경연합 국장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된 '더 코브(The Cove): 슬픈 돌고래의 진실'이라는 영화를 인상 깊게 보았다. 일본 와카야마현의 타이지(太地)라는 작고도 아름다운 태평양 연안의 소읍에서 매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지는 돌고래 사냥의 잔인함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와 달리 시청일관 긴박함을 느끼게 하는 구성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영화는 2009년 미국 선댄스 영화제 관객상을 비롯해 세계 각지의 11개 영화제에서 13개의 상을 땀을 뺀 정도로 꽤나 평판이 좋은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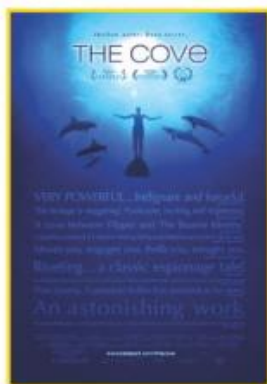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릭 오베리는 백발의 노인으로 한때는 아주 잘 나가던 돌고래 조련사였다. 1960년대 미국 마이애미 해양 수족관에서 일하던 그는 다섯 마리의 큰돌고래를 직접 포획하고 훈련시켜 64년부터 67년 사이에 방영된 '플리퍼'라는 미국 TV 시리즈에 내보냄으로써 당대 최고의 돌고래 조련사로서 부와 명성을 쌓게 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돌보던 돌고래 한 마리가 눈앞에서 자살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돌고래 조련사에서 돌고래 보호운동가로 변신하게 된다.

큰돌고래의 경우 인간보다 두뇌 용량이 더 크고 지능은 최소 6~7세 아동 수준이며, 자신을 알아보는 인식 능력이 있다. 청력이 아주 민감하고 물속에서

다양한 음파를 발생해 서로 의사를 소통하며 매우 사회적인 동물이다. 야생에서는 하루에 65km를 헤엄치던 돌고래가 좁은 수족관에서 갇혀 지내는 동안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숨을 쉬지 않고 자살했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바하마의 섬에서 잡혀온 돌고래를 탈출시킨다. 이후 그는 돌고래 포획에 반대하며 수족관의 돌고래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앞장섰다. 이런 활동으로 인해 여러 차례 법정에 서기도 한다. 지금도 도미니카공화국의 한 돌고래 수족관으로부터 3억 달러짜리 소송이 제기돼 있다.

40년 넘게 돌고래 보호 활동을 하던 그가 새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일본 타이지에서 행해지는 돌고래 포획이었다. 일본에선 매년 2만3000여 마리의 돌고래가 잡힌다. 그 가운데에 10%가량이 타이지에서 포획된다. 바다에서 돌고래 떼가 발견되면 여러 척의 소형 이선이 이들을 둘러싸고 바닷물 속에 긴 쇠막대기를 집어넣어 이를 방치로 내리쳐 큰 소리를 냄으로써 청각이 매우 예민한 돌고래를 위협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간다. 돌고래들이 만 안으로 들어오면 만의 입구를 여러 겹의 그물로 막아 세계 각지의 수족관으로 넘길 어린 암컷 돌고래를 먼저 포획한다. 세계의 수족관이나 돌고래 공원에서 가장 많이 전시되는 것이 바로 큰돌

▼ 영화 코넬 포스터



고래 고기는 일본 전역에서 판매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돌고래는 바다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다. 그만큼 수은을 비롯한 각종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많이 축적돼 있다. 수은은 중추신경계와 신장 기능에 장애를 유발하며 태아와 영아의 신경 발달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금속이어서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는 섭취해선 안 된다. 50년대 일본에서 발생한 미나마타병의 주원인도 수은이었다.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주민들이 집단으로 수은 중독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 관계자는 돌고래 고기를 먹는다고 수은 중독에 걸리는 일은 없고 고래잡이와 고래 고기 식용은 이어가야 할 '전통'과 '문화'라고 말한다. 또 돌고래가 너무 많아 바다의 귀중한 어족 자원을 다 먹어치우므로 '해수 구제' 차원에서 포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즘에는 최신 도구를 사용해 단번에 척추를 절단하므로 고통 없이 죽는다고 늘어놓는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그렇게나 많은 돌고래가 일본에서 죽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정작 바다의 어족 자원이 고갈되는 진짜 원인이 인류의 남획 때문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것 같다. 다행히 빅 오베리과 동료들 덕분에 이 영화가 제작돼 사람들은 타이지의 돌고

래인데, 한 마리에 최고 15만 달러(약 1억 7800만원)에 거래된다고 한다. 나머지 돌고래들은 긴 창과 칼로 마구 찢러 죽이는데, 이렇게 잡힌 돌

래 살육 문제에 대해 알게 됐다.

이 때문에 매년 9월 1일에 시작하던 타이지의 돌고래 잡이가 올해에는 9월 9일에야 시작됐다고 한다. 이날 100여 마리의 큰돌고래를 포획했으나 몇 마리는 산 채로 잡히고 70마리는 풀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있으며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평균 700여 마리의 고래와 돌고래가 사고로 죽는다. 대부분 어민들이 바다에 처놓은 그물에 걸려 죽는다. 어민들이 고래를 잡으려고 고래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놓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래류를 쏘아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한다.

게다가 11월 말 울산 장생포에 고래생태체험관이 개관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초 돌고래 네 마리가 울산에 도착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뉴스에선 이들이 바로 일본 타이지 앞바다에서 왔으며 "6개월 동안 야생성을 바꾸는 훈련을 거치면 몸값만 1억원"이라고 했다.

결국 이들이 지난 돌고래 잡이 철에 타이지에서 가족의 끔찍한 학살을 지켜보며 사로잡힌 어린 야생 큰돌고래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의 모습을 보고 탄성을 자아낼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진다.

영화에선 한 서퍼가 증언을 한다. 그는 몇 년 전에 파도타기를 즐기다가 우연히 돌고래들도 자신과 함께 옆에서 파도를 타는 모습을 보게 됐다.

그러던 중 상어가 나타나자 돌고래가 상어 옆 구리를 들이받아 사람들에게서 멀리 쫓아 버렸다고 한다.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는 돌고래가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 바라며 아들을 보호하는 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





유기동물보호소에서의 반려동물입양을 고려해주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키우는 동물은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민소득 연 35,000달러 이상의 선진국일수록 가구당 반려동물보유 비율이나 관련 산업 규모도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 투철한 양육자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또는 아이들이 원하기 때문에 무심코 반려동물을 집에 들였다가 곧 마음이 바뀌어서 동물을 버리거나 유기를 방임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에만 국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의 수가 78,000 마리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많은 동물들이 떠돌이 생활 중 사고와 굶주림, 학대 등으로 죽기도 하는 반면, 상당수의 동물들은 각 지역 관할 유기동물 보호소로 넘겨지기도 합니다. 유기동물 발생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보호시설에 정체되어 있는 동물들은 결국 안락사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의 동물 입양은 이미 한 번 이상 버려진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동물들에게 새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사랑으로 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는 책임감있는 양육자가 될 준비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의 동물 입양을 고려해주세요. 🐾

동물 입양을 고려하기 전에는 반드시 생각해주세요

- ❗ 입양한 동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사랑과 인내심을 갖고 돌봐줄 수 있나요?
- ❗ 먹이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관리, 치료, 중성화 시술, 훈련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나요?
- ❗ 반려동물을 돌보기에 바로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가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이해하기에 너무 어린(6세 이하정도) 아이가 있는 가정, 집을 자주 비우는 직업을 가진 경우,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하거나 비용감당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동물입양은 몇 년 후로 미루시는게 좋습니다.
- ❗ 피치 못하게 집을 비우게 될 경우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줄 사람이 있나요? 이 경우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나 검증된 위탁 시설에 맡겨야 합니다.
- ❗ 책임감을 잃지 않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될 결심이 되었나요? 적절한 치료와 관리, 운동, 먹이의 공급으로 동물을 건강하게 키울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목줄 착용, 배변 처리와 같은 예티켓을 지켜주시고, 입양한 동물이 또 다시 분실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이름표를 동물들이 항상 착용하게 해주세요.
- ❗ 마지막으로 입양한 동물의 평생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반려동물의 수명은 10년에서 15년, 길게는 20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집에서 키운다는 것은 함께 사는 동물을 평생 책임진다는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행당동 미모 담당 시추 여주

이름 : 여주 성별 : 수컷
나이 : 2살 미만 몸무게 : 6kg가량

윤정임 | 팀장



▲ 구조 전 모습

여주 녀석의 주인을 찾는다는 게시글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엉망으로 엉킨 털에 시커먼 구정물을 뒤집어쓰고 밥 동냥을 다니는 안쓰러운 모습이었지요. 본능적으로 주인을 찾는 일은 어렵겠구나. "경기도 여주니까 그래, 이제 네 이름은 여주가 되는 거야"라며 제보하신 분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워낙 험한 세상이다 보니 처음엔 개장수로 의심을 하셨다지요, 며칠 새 어디로 사라져 버릴까 걱정하던 중 친구분의 차량을 섭외해 하루빨리 여주를 데리러 오겠다는 회원님이 계셨으니... 그 분은 바로 동물자유연대 최현미 감사님이

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행당동에 안착한 여주는 천안시 풍세면에서 구조됐던 풍세와 판박이가 아닐까봐 변에 기생충·심장사상충도 똑같이 달고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한 병을 달고 온 녀석들에겐 유난히 정이 더 갑니다. 몸도 아픈 데다 사람에 대한 기억도 좋지 않으니 쉽사리 마음을 열지는 않지만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약을 먹고 다른 녀석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 지니 어느 순간 의지하며 마음을 활짝 열거든요. 이런 정 많은 녀석들은 우리가 아니었다면 배고프고 차가운 곳에서 쓸쓸히 죽어 갔을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하니 더 편안한 마음이 드는 거고요.

귀염둥이 여주도 행당동에 온 첫날엔 거품을 물고 덤비기까지 했는데요. 하하 역시, 사납게 덤벼봤자 시추는 시추일 뿐이예요. 이빨도 조그만 녀석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왕왕' 대는 것이 낯설고 두려웠을 여주에겐 미안하지만 참 웃겼어요. 행당동 생활 3개월째에 접어드는 여주는요, 요즘 무한 매력을 발산하며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잘 먹죠, 어리죠, 애교 많죠, 예쁘죠, 살짝 흠이라면 조금 부족한 배변인데 천재 풍세를 닮았으니 배변도 입양 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매력 덩어리 여주의 요즘 별명은 대갈 여주랍니다. 보기보다 머리가 크거든요. 머리 반, 몸 반의 황금비율, 다소 희끗희끗한 오묘한 털색, 드럼통 같은 D자 라인을 보신다면 그 매력에 안 빠지고는 못 배기실 겁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처음의 모습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밝고 맑은 성품에 상처는 깊어 보이지 않아요. 빨리 인연을 만나 행당동에 가끔 찾아오는 우울증이 여주를 비켜 가기를 바랍니다. 🐾



▲ 구조 직 후 모습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어 의를 실천하는 것이 참된 기부입니다”



천 경·옥 국장 | 취재·정리

'도움과 나눔' 최영우 대표

11월 9일 도움과 나눔 사무실에서 최영우 대표를 만났다. 도움과 나눔은 비영리단체 컨설팅 전문 회사로 동물자유연대는 2008년부터 도움과 나눔을 통해 펀드레이징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도움과 나눔은 1999년에 설립되었고 2001년 최영우대표가 영입된 이후 비영리단체와 기부자를 연결하는 전문적인 컨설팅 회사로 자리잡아 왔다. 한 사회에서 기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며

비영리단체가 모금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란 무엇일까. 연말이 되면 구세군 냄비에 동전 몇 푼 넣고 독거노인이나 결손가정의 아이를 돕는 프로그램의 방영, 유명인이나 정치인이 고아원 등을 방문하는 것이 기부문화의 전부일까. 동물자유연대 역시 기부자들이 보내준 회비로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의 기반에서 모금의 확대는 성장의 중요한 관건 중 하나이다. 동물자유연대가 이 사회에서 발전하는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한 모임 그 이상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최영우 대표로부터 그간 우리 기부문화의 역사와 전망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그간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사회적 현상과 기부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형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전쟁과 기아 상황, 가난을 극복하는 과정은 상당부분 서구의 자선가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고 이후에도 당장에 처한 누군가의 어려움을 돕는 일부 자선가들의 선의적 행동이 직접 연결되는 형태였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발전하면서 선의를 행한다는 개념 역시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 이제 시민들이 가까이 기부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 어떻게 기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이끌어내는 것, 기부금이 진정한 선의적 행동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최영우 대표에 따르면 이는 현재 서구와 우리 기부문화의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한다.

동물자유연대라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보다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은 무엇일까, 어떻게 시민사회로부터 제대로 일하는, 사회적 정의와 선의를 실현하는 그룹으로 인정받고 동시에 사회적 주요 이슈를 이끌어내 단체가 추구하는 미션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와 기부자를 연결하는 매개의 역할로서 최영우 대표에게서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우선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념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추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대표에 의하면 기부를 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다. 결국 동물자유연대는 인간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동물이슈를 이끌어내 동물과 사람의 외로운 관계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기부문화에 대한 사상은 어느 사회에서나 있었다. 최영우 대표는 유대인들의 기부문화를 설명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은 기부의 참된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1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2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3절)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4절)

기부란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행하는 삶의 한 부분이다. 히브리어가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justice를 의미하는 제데크(그리스어로 디카이오스 네)는 자선을 의미하는 엘레에모수예와 구분되지 않는다. "의"를 행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즉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자선은 곧 정의를 의미하며 자선이란 여유가 남아돌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의 무엇이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적인 도리이고 정의를 의미한다. 기부는 여유 있는 자만의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지지 않으며 나를 참된 나로 만들어주는 실천이며 약자에 대한 배려는 나와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이상의 의미이다. 최영우 대표는 기부란 살아 있는 모든 존재와 나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한다.

점차 파괴되고 있는 지구와 매서운 경쟁으로 낙오된 사람들의 피폐한 삶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놓인 과제는 분명하다. 지구촌의 한 일원이면서도 인간에 의해 일방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동물들과 함께 공존하는 방식을 이 사회에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 의를 행하고자 자신의 작은 몫을 주저함 없이 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기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이고 그 것을 해결하고자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법으로 소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점차 각박해진다고들 한다. 그러나 힘든 시기를 함께 넘으려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희망은 더욱 커진다. ☺



섬에 버려지는 개들



휴가철이 지나면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유기견들로 넘쳐나는 섬 '욕지도'가 SBS 동물농장을 통해 소개되었다. 이곳에 버려진 유기견들은 푸른 바다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결코 다시 주인에게 돌아갈 수 없다.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섬안의 유기견들을 돕기 위해 9월 17~19일 2박3일의 여정으로 동물농장팀과 함께 욕지도를 다녀왔다.

욕지도 봉사 소식이 들리자 여러 회원들이 유기견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보내 주었고, 내추럴발란스에서 많은 양의 사료를 후원해 주었다.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미용봉사자 모집. 모두들 생업이 있는 티라 평일에 며칠씩 떠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큰 결심을 해준 미용봉사자 소이씨, 원옥씨, 난영씨, 원재씨, 영란씨 모두 너무 고마운 분들이다.

17일 새벽 5시에 출발하여 통영에서 배를 타고 욕지도에 도착하니 어느덧 오후 2시가 넘는 시간이었다. 긴 여정을 풀 시간도 없이 우리는 바로 선착장 근처에 마련된 임시진료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먼저 도착하

신 수의사분들이 벌써 진료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진료소 옆에 자리를 잡고, 유기견이었다가 다시 보급자리를 찾은 개들을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시작하였다. 임시진료소는 섬 주민과 개들로 북적거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리를 잡고 차분히 진행되었다. 직접 방문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후원 물품을 가지고 출장봉사도 갔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선착장 근처의 식당 아주머니들 덕이었다. 이 섬의 사연이 소개된 것도 이 식당의 아주머니께서 재보를 하신 것이라 한다. 선착장에서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풀이가 머물고 있는 이 식당의 주인아주머니는 풀이 외에도 3마리의 유기견이 더 있었다. 사료를 사려고 해도 배를

타고 물로 나가야 하는 섬

이기에 우리가 가져온 사료와 후원물품들에 아주머니





서 너무나 고마워 하였다. 이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주머니의 때에는 개들 사이에서 교배를 하여 늘어난 것이 어느덧 13마리가 되어 있었다. 사람병원도 없는 이곳에 동물병원이 있을리 없으니 중성화 수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었다. 둘째 날 식당의 옥상에 수술실을 마련하고 개들의 중성화 수술을 시작하였다. 암컷들 보다는 회복이 빠른 수컷 위주로 수술을 하였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 밀려드는 개들의 일부 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우리는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개들을 구조하려고 찾던 중 뜻밖의 사실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유기견들이 넘쳐던 섬에 식용을 하는 주민들을 피해 산으로 도망쳤거나, 비참한 죽음을 당해 한달새 100여 마리에 육박했던 개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모두들 안타까운 마음에 2박3일 동안 산으로 도망갔다는 유기견들을 구조하기 위해 섬 전역을 뒤졌지만 해안도로를 돌아다니는 한마리 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 섬을 돌아다니던 중 산속 깊은 곳에 폐가처럼 보이는 농장을 발견하였다. 그 곳에는 누렁이들 외에 허스키도 있었다. 비를 피할 지붕조차 없었고 가까이 다가가니 극도의 공포를 내보이는 개들과 널브러져있는 잔반들로 인한 악취, 무언가 태웠던 흔적 속에 발견된 개의 목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되는 상황에 우리 모두는 아연실색하여 이곳의 주인을 만났다. 주인아저씨는 개를 좋아해서 기르는 것이며 절대 잡아먹거나 파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계속된 추궁에도 자신은 절대 개를 먹지 않는다고 했다. 개를 좋아한다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우리에게 넘겨달라고도 설득했지만 아저씨는 그것마저도 거부하였다. 결국 우리는 제발 개들의 사육환경만이라도 개선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돌아서야만 했다.

또한 우리는 진료소에서 10여미터 떨어져 있던 곳에서 식용으로 키워지고 있는 누렁이들을 발견하였다. 수십 번이나 그 앞을 지나갔었지만 개들은 전혀 쫓지도 않았고 판자로 가려져 있어서 그곳에 개들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바로 옆 건물 옥상에 마련된 수술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이 누렁이들의 주인은 너무도 당당하게 먹으려고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 년에 두 번씩 꼭 먹는다고, 그래서 자신은 건강하다고 말하는 주인은 어떤 말로 설득을 해도 통하지 않았다. 우리는 또 다시 사육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부탁만을 남긴 채 나와야만 했다. 버려지는 일, 갇은 학대를 당하는 일, 먹이기 위해 길러지는 일, 이곳에서 보고 들은 일들은 이 나라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을 때가 동물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때이다. 이런 일을 매일 마주치면서 나의 존재감에 대한 회의마저 들기도 한다. 섬의 유기견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태이다. 하지만 내년 여름 무렵이면 또다시 늘어 날 것이다. 유기견을 몇 마리 구조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이런 일들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에게 동물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학대가 없어지는 그날은 언제가 될까? 당장에 그런 날이 오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30년이 지나야 될 것을 20년, 10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희망으로 우리는 차분히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





■ 욱지도 유기동물 구조 및 봉사

배를 타아지만 나올 수 있는 섬마을 욱지도에 버려진 유기견들을 위해 동물자유연대가 SBS 동물농장팀과 함께 나섰다. 유기견들의 진료와 중성화 수술을 맡아줄 수의사 선생님과 미용봉사자들이 동행하여 2박3일 동안 빠듯한 일정으로 봉사를 마쳤다. 수의사 선생님과 미용봉사자들 후원물품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제3기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2009년 임시총회가 지난 9월 19일 동물자유연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모이는 첫 총회였으며, 제3기 임원 선출이 있었다. 제2기 이사님들께서 유임한 가운데 최현미감사님과 김현성이사님이 새로 선출되었다. 또한 동물자유연대의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늦은 저녁까지 계속 되었다.



■ 세씨&헤지스와 함께 한 유기동물 보호 캠페인

월간지 '세씨'에서 진행되는 유기동물 보호 캠페인이 올해는 '헤지스'의 후원으로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진행 되었다. 캠페인 기간 동안(10월 5일~31일) 헤지스가방(인조가족)을 구입하면 구매자의 이름으로 동물자유연대에 500g씩 사료후원이, 구매자에게는 유기동물 방지 네임태그가 증정되었다.

■ 동물진료비의 부가가치세 부과반대 캠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동물병원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2009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동물병원 진료비의 상승을 가져와 유기동물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단체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

■ 동물쇼 반대 캠페인

대부분의 동물원에서는 수익을 내기위해 동물쇼를 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쇼는 동물의 본 모습을 왜곡하고 있으며, 심각한 동물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러한 동물쇼를 중단하기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동물쇼의 진실을 알리는 기사와 동영상은 배포하고 싸이월드를 통해 동물쇼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 환경부의 2만마리 멧돼지 살생 저지 캠페인

환경부에서는 '도심출현 야생 멧돼지 관리 대책'으로 2만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한다고 발표하였다. 동물자유연대에서는 비과학적이고 주관적 판단에 의한 출속행정에 항의하고, 멧돼지 관리 대책에 대해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다. 앞으로도 관리대책을 결정함에 있어 인도적인 관리방식이 충분히 논의되고, 타당한 시민적 합의를 거치도록 하기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 2010 동물보호달력 판매

동물복지를 주제로한 2010년 동물자유연대 탁상달력이 제작되었다. 이번 달력의 일러스트는 김종필님께서 자원활동으로 작업을 해주셨다. 이번 달력의 수익금은 안성보호소를 포함한 두 곳의 보호소를 지원함과 동시에 동물자유연대의 행동동 전기보수공사에도 일정 금액이 쓰일 예정이다.

■ 한겨레21 정기구독 및 신한카드 포인트로 후원하기

동물자유연대가 신한카드사의 사회공헌프로그램 '아름인'의 기부처로 등록되어 신한카드 포인트나 카드결제를 통해 아름인 기부처에 등록된 한국동물복지협회에 기부하실 수 있게 되었다. 한겨레21 '아름다운 동행' 홈페이지에서 한국동물복지협회를 통해 정기구독 신청을 할 경우 구독료의 20%가 기부된다.

분리 불안이 심한 반려견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분리 불안이 심해요. 잠시도 개를 혼자 두고서 집을 비울 수 없어요.



분리 불안이 생기는 것은 대개 개들이 지루함을 느끼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즉 자기를 사랑하고 귀여워 해주는 주인이 없이 혼자 집에 남겨질 때의 외롭고 심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분리 불안을 겪는 개들은 특히 주인이나 가족이 외출하기 직전이나 집에 돌아오기 직전에 흥분 상태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개들은 혼자 있을 때 주인이나 가족의 냄새가 배어 있는 작은 물건들을 끊임없이 씹거나 망가뜨리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짖거나 평소의 배변 습관과는 다르게 여기저기에 배변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들은 한시라도 주인과 떨어지지 못하며 항상 주인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갈구합니다. 이러한 반려견의 분리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정리해봤습니다.

1. 집에서 나가고 들어올 때 취하는 동작이 개의 관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루하게, 감정을 질어넣지 말고 해보세요. 대개 외출하거나 집에 들어올 때 반려견을 안쓰럽게 생각하거나, 반가운 마음으로 개들의 과도한 흥분에 덩달아 호응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개들은 혼자 남겨졌을 때의 외로움을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반려견의 행동에 일일이 반응을 보여주지 마세요.
함께 놀아주는 등 반려견과의 상호작용은 반려견이 아닌 여러분이 주가 돼야 합니다.
3. 여러분이 외출하는 것을 알리는 특별한 표현을 반려견에게 보여주세요. 집에서 반려견과 함께 있는 도중에도 때때로 열쇠를 든다거나, 재킷을 입는 것과 같은 모습을 반려견에게 보여줍니다.
주인의 외출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 이러한 움직임을 사전에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반려견이 느끼는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반려견과 함께 있을 때에는 최대한 운동을 많이 시켜주세요. 운동은 신체적 운동뿐 아니라 정신적인 운동도 중요해요. 즉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를 탐색하게 한다거나 다른 개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하러 갈 때에는 개의 이름표와 목줄은 필수인 거 아시죠?
5. 여러분이 외출하기 전 반려견들이 손을 대서는 안 될 물건들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세요.
대부분의 경우 반려견들은 체벌과 자신이 한 행동을 연결짓지 못합니다. ❷





쉽고 간단한 '버섯덮밥'

손혜원 | 신임간사

재료

기본재료 : 버섯, 양파, 당근, 통깨, 오일
양념간장 : 간장, 굴소스, 설탕, 다진마늘, 다진파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 끼니때마다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평일에는 대부분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편이지만,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휴일에는 어쩔수 없이 무언가 만들어 먹어야 하죠. 그러다 보니 별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간단한 덮밥류를 즐겨 먹습니다. 똑딱 볶음요리 하나로 맛과 영양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자주 해먹는 버섯덮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몸에 좋은 버섯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버섯덮밥! 정말 영양만점 별미랍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한끼 해결하기에 딱 좋습니다. ㉞

» 버섯덮밥 만드는 법



1. 야채들을 손질한다.(재료는 원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양념장 재료들을 섞어 미리 양념장을 만들어 둔다.
3. 기름을 두른 팬에 단단한 당근을 먼저 넣고 볶다가 양파와 버섯을 넣고 같이 볶는다.
4. 양파가 투명해지는 정도로 볶아지면 양념장을 넣고 한번 더 살짝 볶는다.
5. 다 볶아지면 밥 위에 올리고 통깨를 솔솔 뿌린 후 먹는다.

Photo 행당뉴스

육지도 3남매의 서울 적응기

유기동물로 넘쳐 난다는 남해의 작은 섬 육지도에서 올라 온 3남매를 소개합니다.
초티 뽀뽀 풍겨나는 룩이!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섬 색시 양양! 난 아무것도 몰라요가 컨셉트인 득이!
빌딩도, 지하철도 난생 처음인 섬 아가들의 서울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ㅎ

룩이



양양



득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달력

2010년 동물자유연대 탁상용 캘린더

여러분의 후원을 바탕으로 동물자유연대에서 보호하고 있거나, 새로운 삶을 찾게 된 동물친구들의 정겨운 얼굴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에 대하여 의미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김중필 회원님의 카툰으로 여러분의 책상과 눈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동물자유연대 2010년 새해 달력 판매를 시작합니다.

소장하기에도, 선물하기에도 모두 뜻 깊은 동물자유연대 2010년 달력! 초판 인쇄 1000권이 순식간에 매진되는 행복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 : 권당 7,000원 + 배송비 3,000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806201-04-167810 | 예금주 (사)한국동물복지협회

배 송 일 : 12월 둘째주 일괄배송합니다.

달력의 판매 수익금은 안성보호소를 포함한 두 곳의 유기동물 보호소의 겨울 살림을 지원하며, 동물자유연대 행당동 희망터의 전기보수공사에도 일부 사용될 계획입니다.



• 달력구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www.animals.or.kr를 참조해 주세요!

동물자유연대를 아끼시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립니다

Support

후원해 주세요

동물들은 이 지구상에서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자연의 어우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들은 인간 삶의 질에 다양한 형태로 기여하기도 하고, 많은 수의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해 희생되기도 합니다. 정서가 예마른 현대 사회에서는 인생의 동반자로, 인간의 식생활과 생활용품, 오락, 의학, 과학 개발의 현장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곳에서 동물들이 이용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동물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때론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합리화되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에는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인간은 동물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의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 고통을 호소하며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하는 동물들의 절규, 끝 간데 없는 동물 이용. 우리는 동물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충만한 가치 사회를 구현해나가는 일, 여러분들의 동참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부당한 처우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위해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 · (사)한국동물복지협회의 후원인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계좌 : 국민은행 806201-04-005468 농협 : 015-17-002592

정기후원방법

- 이 면을 작성하여 절취하신 후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 <http://animals.or.kr>로 접속하셔서 정회원에 가입하시면 후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화 02-2292-6337, 팩스번호 02-2292-6339 (전송 후 확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이 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휴대폰 _____

주 소 _____ 전 화 (집/회사) _____

자동이체계좌번호 _____ 은행명 _____ 예금주 _____

※ 예금주와 후원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기재 _____

후원금액 _____ 자동이체 날짜 _____ 5일 ☐ 14일 ☐ 23일 ☐ (확인 요망)

※ 우리단체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간만이 희망이다”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몫을 빼앗아 동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
소외된 약자에 대한 분배의 자비심입니다.

함께
나누는 **삼**

발행처 동물자유연대 · (사)한국동물복지협회 서울 성동구 행당동 307-18 T 02-2292-6337 F 02-2292-6339
발행인 조희경 발행일 2009년 11월 30일 편 집 · 진 행 손해원 교정 · 교열 이정애 일러스트 김중필
계간지 / 2009, 가을호 등록번호 성동바 00007 www.animals.or.kr 디자인 · 제작 동방기획(02-2277-0365)